[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재생 에너지 도입 계획

방글라데시는 일조 조건이 뛰어난 환경으로 예로부터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에 주력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SHS)은 전력망 보급이 어려운 지방을 중심으로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증량 추진,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

프랑스의 비영리 조직 REN21(21세기를 위한 자연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의 「자연 에너지 세계 백서 2017」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수는 400만대 수준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규모 독립형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인 미니 그리드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0%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발전 분야의 강화, 비용 절감, 전기 비율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발전 용량 이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 인도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부탄의 수력 발전에 의한 전력 수입도 협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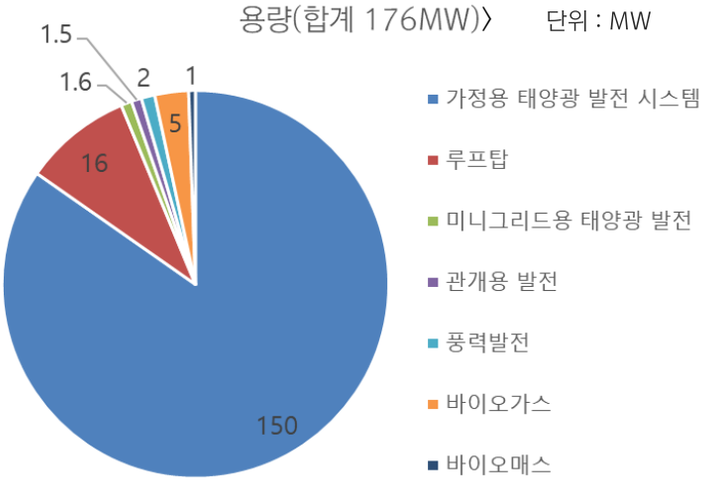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정부, 태양광 패널 증세 계획 철회

작년 방글라데시는 정부가 7월부터 예정하고 있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증세를 철회한 바 있다. 원래 계획은 37.5%라는 대폭적인 증세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전부터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컬 생산자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 관세 10%, 부가가치세 18%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여론의 반대가 강하여 2년의 연기를 결정, 수입 관세도 적용을 철회하고 면제를 지속해 왔다. 태양광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여론이 강했던 점이 태양광 패널 고관세 적용을 철회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태양광 패널은 수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 태양광 패널 고관세 부과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체에 벌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하며, 증세에 반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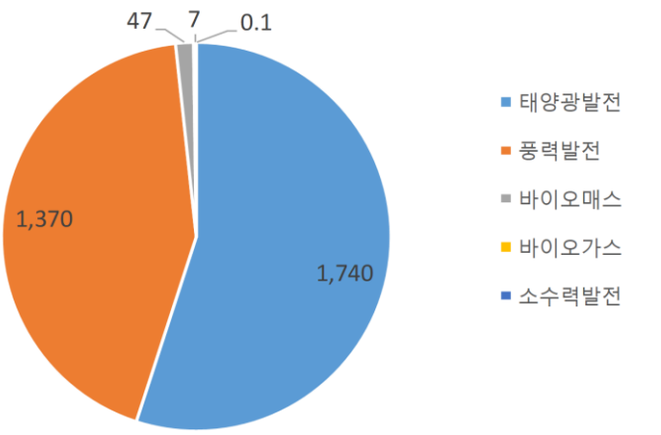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정부 신재생 에너지 증량 세부 계획

2015년 방글라데시 발전 설비 총 용량은 15,357MW이며, 그 중 신재생 에너지는 176MW (약 1.1 %)였다. 방글라데시는 일조 여건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광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태양광 발전 1,740MW(55%), 풍력 발전 1,370MW(43%) 규모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계획 중인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 발전(3,168MW)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2015년 방글라데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합계 176MW)〉 단위 : MW



〈2021년 방글라데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목표(합계 3,168MW)〉 단위 : MW



출처 : World Future council

향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증량을 촉진하기 위해 ① 설비 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② 민간 대출・소액 융자 네트워크의 정비, ③ 유틸리티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④ 독립 발전 사업자에 매입 세액 보다 10% 높은 전력 매입 가격 설정, 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절차 간소화 및 대출 강화를 실행할 계획이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Sankeibiz, 방글라데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금 인상 철회…낮은 가격 유지에 안도의 목소리, 2017. 07. 20
https://www.sankeibiz.jp/macro/news/170720/mcb1707200500018-n1.htm